

동구, “2023년도 동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 받습니다”

사회·봉사·문예·체육·지역·경제, 각 1명 선정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2023년도 동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3월 10일까지 추천받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동구민상은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 창조적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구민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 동구민상은 ▲사회·봉사 부문 ▲문예·체육 부문 ▲지역경제 부문

각 1명씩 총 3명을 선정하며,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추천 또는 지역민 10인 이상이 연대 추천해야 한다. 사회·봉사 부문은 희생적인 봉사와 선행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등 이웃돕기에 헌신한 실적이 뚜렷한 자, 문예·체육 부문은 문화예술 진흥과 생활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다. 지역경제 부문은 어려운 경제 환

경 속에서도 남다른 창의력으로 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다. 수상 후보자 자격은 공고일(2월 20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동구에 거주하고, 동일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내달 10일까지 동구청 누리집에서 추천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민원봉사과,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동구는 4월 중 동구민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 ‘동구민의 날(4월 21일)’에 시상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의 발전을 위해 사회·문예·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해 오신 분들이 많이 추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남구, 건축물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나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건축물 건설 및 해체 공사장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이루기 위해 건축물 신축부터 해체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남구는 “건축물 관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청 내에 전문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리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 개축 등을 하는 건축물이며, 인테리어 공사 등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공사장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건축과 및 주택과 등 건축공사 소관 부서에서 전문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해당 공사장에 구조기술사와 건축사를 현장으로 보내 각종 업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해빙기와 동절기를 비롯해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시기에 따라 취약시설 또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해당 건축물 및 공사장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을 통해 건축물을 제거하는 해체 공사장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에 나서거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을 통한 현장점검 업무 대행으로 건축물 안전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규진 기자

북구, 도시브랜드 개발 착수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도시정체성 확립과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도시브랜드(BD) 개발에 나선다.

북구에 따르면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과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우수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착수에 들어간다.

현재 사용중인 북구 심볼마크(CI)만으로는 이미지 차별화에 한계가 있어 특색 있는 도시브랜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북구는 광주디자인진흥원에 개발 전반을 위탁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담은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8월까지 창출할 계획이다.

도시브랜드 개발에는 북구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정책, 문화, 사회, 역사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며 국내외 성공 사례와 전문가 의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또한 아이디어 공모, 선호도 조사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확장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슬로건 만들기 플랫폼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완성된 도시브랜드는 다양한 공공행정 분야에 적용하고, 선포식을 열어 주민들에게 북구의 새 이미지와 미래 비전을 전달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 개발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최근 지난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성과확산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6월 서구와 보전대학교 컨소시엄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에 선정된 후 첫째 이뤄낸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2023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서구청 제공

서구,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포럼 개최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최근 라마다호텔에서 지난 2022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성과확산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6월 광주 서구와 보전대학교 컨소시엄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에 선정된 후 첫째 이뤄낸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2023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강 서구청장, 고경애 서구의회의장, 서구의회의원, 정명진 보전대학교 총장, 보전대학교 교직원, 평생직업교육 강사, 직업교육프로그램 교육생, 사업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형수 HIVE 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프로그램 추진실적, 사업추진 조직, 추진성과, 우

수사례 등을 소개하고,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나갈 지역 인재양성과 육성을 위해서는 산·학·관 서로의 협력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며 “하이브 사업이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지역상생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광산구, 언어·청각 장애인 소통 창구 운영

“언어장애가 있어 행정기관에 문의 사항을 말 하려면 힘들어요. 언어·청각장애로 인해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소통 창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최근 ‘광산구청장 직통 모바일 문자서비스’로 접수된 한 장애인의 호소에 광산구가 언어·청각 장애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문자로 소통할 수 있는 전용 민원창구 운영에 나섰다.

창구의 이름은 ‘이음번호0420’. 장애인의 날인 4월20일의 숫자를 따 010-3234-0420 번호로 광산구 장애인복지과 문자 전용 회선을 개설했다. 언어·청각 장애인이 직접 문자 메시지로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광산구는 문자로 접수된 불편 민원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답변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소통 창구가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역 언어·청각 장애인 690명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아인쉼터, 복지기관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문자 소통 창구를 제안한 박정웅 씨는 “박병규 청장님께 문자로 보낸 제안이 실제로 반영돼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다”며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장애인 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자로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장애인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광산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 생활 속 차별의 장벽을 없애고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기자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전국 최대 주산지

보성키위

집에서 청정 보성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 보성물 검색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seonglov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tYUyKbSbhc69PgCpYQ>

※ 매달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